

고용노동부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사업 기본정보>

- 사업유형/세부유형 : 고용장려금사업/고용창출형
- 소관부처/담당부서 : 고용노동부/고용정책총괄과
- '21년 평가등급 : 개선필요

1 사업 주요 내용

□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사업목적)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지원
- (사업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인건비 일부 지원

- 1년 범위 내, 6개월 단위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6개월 단위, 1년 지원)

□ 예산 및 재원: 고용보험기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년			'21년 예산 (B)	증감(B-A)	
	본예산 (A)	추경	결산			(%)
□ 고용창출장려금	1,143,095	636,126	1,573,398 (88.4%)	186,481	△956,614	△83.7
○ 고용창출장려금	149,994	201,162	145,668 (41.5%)	185,507	35,513	23.7
▪ 고용촉진장려금	49,244	226,460	80,329 (29.1%)	94,220	44,976	91.3
○ 운영비	2,201	△96	1,977 (89.8%)	974	△1,227	△5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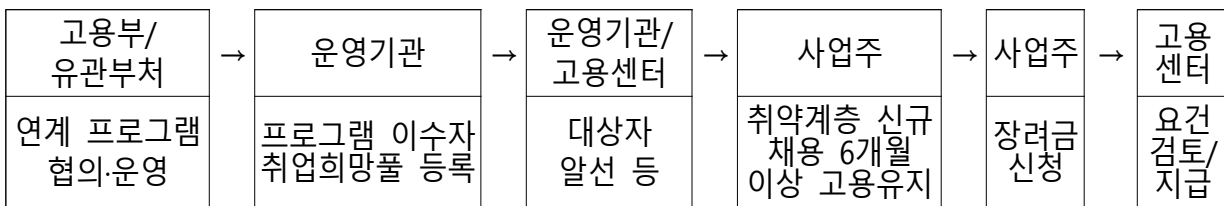
□ 추진근거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 주요 지원대상

- 취업취약계층 신규 고용 사업주

□ 전달체계



□ 전년 대비 주요 개편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에 따른 지원대상자 반영, 40대 일자리 맞춤 대책 관련하여 40대 대상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취업지원대상 프로그램 추가 반영
- 특별고용촉진장려금('20년 3차 추경신설) 지원대상 계속 지원분 반영

2 정량지표 평가 결과

□ 참여 근로자 현황

- (참여 근로자 수) '20년 기준 고용촉진장려금을 최초 지원받은 근로자¹⁾ 수는 4,451명으로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전체 근로자 중 0.2%, 고용창출형 장려금을 지원받은 근로자 중 2.6%를 차지함.
- (성별) 남성 근로자의 지원 비중이 27.0%로 여성 근로자의 지원 비중 (73.0%)보다 낮게 나타남.
- (연령별) 중년(57.9%)의 지원 비중이 가장 높고, 장년(19.5%), 청년 (19.3%), 고령(3.3%) 순으로 지원 비중이 높게 나타남.

1) 소관부처에 따르면 '20년 지원을 받은 전체 근로자 수(순인원 기준)는 10,669명으로 고용창출 장려금을 지원받은 근로자 중 4.0% 규모임

〈표 1〉 고용촉진장려금 참여 근로자 현황

(단위: 명, %)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청년 (15~34세)	중년 (35~54세)	장년 (55~64세)	고령 (65세이상)
고용장려금 전체	2,583,913 (100.0)	1,176,447 (45.5)	1,407,404 (54.5)	1,253,831 (48.5)	957,824 (37.1)	296,284 (11.5)	75,650 (2.9)
고용창출형 전체	168,420 (100.0)	95,056 (56.4)	73,364 (43.6)	130,231 (77.3)	17,890 (10.6)	11,557 (6.9)	8,662 (5.1)
고용촉진 장려금	4,451 (100.0)	1,200 (27.0)	3,251 (73.0)	859 (19.3)	2,577 (57.9)	868 (19.5)	147 (3.3)

주1: 성별, 연령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여 각 비율의 합은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참여 사업장 현황

- (참여 사업장 수) '20년 기준 고용촉진장려금을 최초 지원받은 사업장 수는 2,682개소로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전체 사업장 중 0.8%를 차지하며, 고용창출형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 중 9.2%를 차지함. 2)
- (규모별) 300인 미만 사업장(99.7%)이 대다수이며, 300인 이상 사업장(0.3%)의 참여도는 매우 낮은 편임.
- (산업별) 서비스업(80.0%)의 참여 비중이 높고, 제조업(15.1%) 및 건설업(4.8%)의 참여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2〉 고용촉진장려금 참여 사업장 현황

(단위: 개소, %)

유형	전체	규모별		산업별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고용장려금 전체	336,601 (100.0)	333,357 (99.0)	2,258 (0.7)	64,040 (19.0)	8,350 (2.5)	262,195 (77.9)
고용창출형 전체	29,097 (100.0)	28,362 (97.5)	452 (1.6)	7,507 (25.8)	1,468 (5.0)	19,758 (67.9)
고용촉진 장려금	2,682 (100.0)	2,674 (99.7)	7 (0.3)	404 (15.1)	128 (4.8)	2,145 (80.0)

주1: 규모별, 산업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므로 각 비율의 합은 100%미만일 수 있음

2) 소관부처에 따르면 '20년 지원을 받은 전체 사업장 수(순사업장 기준)는 8,591개소로 고용창출형 장려금 지원 사업장 중 14.0%임

□ 정량지표별 결과

〈표 3〉 고용촉진장려금 정량지표 결과

(단위: %)			
	고용유지율 (6개월)	고용증감률1)	기업생존률2)
고용장려금 전체	81.2	25.3	84.8
고용창출형 전체	73.1	29.3	/
고용촉진장려금	59.9	19.0	/

주1: 고용증감율은 고용창출형과 고용유지형에서만 산출하며, 고용유지형은 종료 후 고용증감율로 산출
 2: 기업생존률은 고용유지형과 고용안정형에서만 산출
 3: 모성보호형은 고용유지율만 산출

□ 만족도 조사 결과

○ 항목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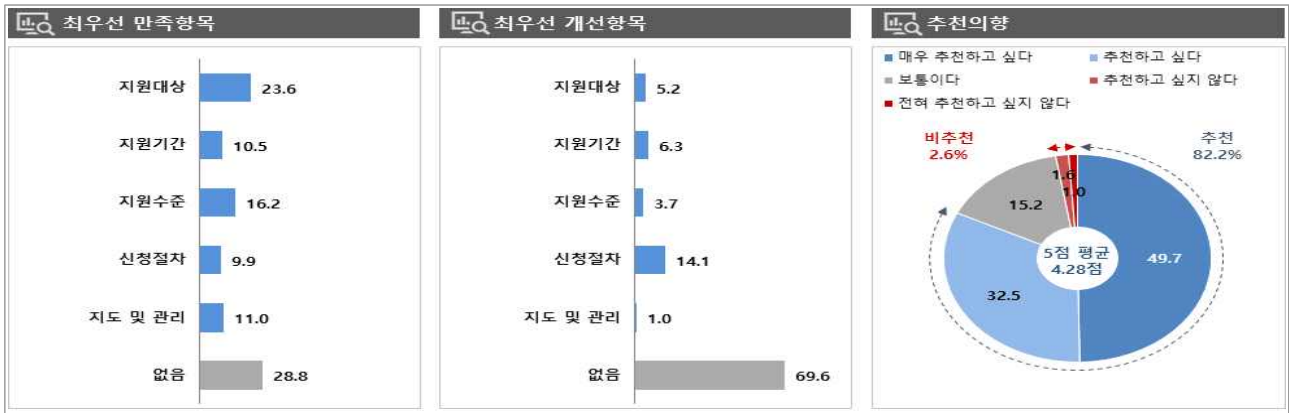
〈표 4〉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										
	전체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절대적 만족도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신청 절차	지도 및 관리	주관적 만족도	상대적 만족도
고용장려금 전체	4.20	4.19	4.19	4.36	4.21	4.17	4.05	4.16	4.28	4.16
고용창출 전체	4.18	4.18	4.18	4.37	4.22	4.16	3.98	4.17	4.26	4.16
고용촉진장려금	4.12	4.11	4.09	4.27	4.10	4.16	3.82	4.12	4.23	4.05

주: 1) 만족도 조사 결과는 1점 매우 불만족부터 5점 매우 만족까지로 구성된 5점 척도 문항의 평균값임
 2) 전반적 만족도: 사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절대적 만족도: 5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
 주관적 만족도: 사업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상대적 만족도: 사업에 대한 기대 대비 만족도

○ 만족/개선 항목 및 추천 의향

[그림 1]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만족/개선 항목 및 추천 의향



주: 1) 만족항목

- 전체: 지원대상(28.8) > 지도수준(16.9) > 지도/관리(10.3) > 지원기간(9.8) > 신청절차(9.1) ; 없음(25.1)
- 창출: 지원대상(23.4) > 지원수준(13.8) > 지도/관리(10.4) > 지원기간(10.1) > 신청절차(9.7) ; 없음(32.6)

2) 개선항목

- 전체: 신청절차(8.6) > 지원기간(5.9) > 지원수준(4.8) > 지원대상(3.7) > 지도/관리(3.1) ; 없음(74.0)
- 창출: 신청절차(11.5) > 지원기간(5.0) > 지원수준(4.9) > 지원대상(4.4) > 지도/관리(2.4) ; 없음(71.7)

3) 추천 의향

- 전체: 4.29점, 추천(81.9=31.4+50.5) > 보통(15.4) > 비추천(2.7=2.1+0.6)
- 창출: 4.22점, 추천(80.1=33.9+46.2) > 보통(16.8) > 비추천(3.1=2.2+0.9)

3 정성지표 평가 결과

□ 사업의 중요성

○ 본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한 대표적인 지원사업으로, 특히 코로나 위기하에서 취약계층 고용유지와 촉진에 기여한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됨

- '18년 이후 청년 제외 실질적 취약계층에 초점을 두고 있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에서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에 초점을 둔 대표적인 사업
- 이중 일반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
- 특별 고용촉진장려금은 코로나 위기상황을 반영하여 지원대상에서 실업자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20. 7. 27):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이직하여 취업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취업촉진 지원 대상자(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등)를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시적 시행

□ 일자리 사업 성과

- '20년도 코로나 상황에서 일반 고용촉진 장려금보다 특별 고용촉진 장려금에 집중하여 운영되었음
 - 코로나 사태로 채용여건 악화에 따라 특별 고용촉진장려금에서는 실업요건을 완화하여 특례지원사업 추진
 - * 특별 고용촉진 장려금 수혜자 13,163명: 30인 이하 사업장(82.4%), 31~100인(13.3%) 100인 초과 (4.3%)
 - 일반 고용촉진 장려금의 경우 채용 대상자가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일 경우 채용에 유리하다는 점이 작용하여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에 기여
 - 취약계층의 높은 이직률을 고려해도, 고용장려금 전체 유지율에 비해 고용촉진 장려금의 고용유지율이 뚜렷하게 낮아 고용유지율 제고노력이 필요함

□ 운영의 적절성

- 코로나 고용위기에 대응하여 예산 증액, 특별 고용촉진 장려금의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 상향 등 제도와 운영상의 획기적인 개선노력이 있었으나,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추진성과는 개선 필요
 - '20년 사업수행 인력충원 노력으로 연말 증원하여 21년부터 고용센터에 투입
- 코로나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한시적 특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이 일반 고용촉진장려금에 비해 많았으나, 이후 경기회복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 '20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금이 일반 고용촉진장려금보다 높아서 다수가 이를 신청하였음
 - * 일반 고용촉진장려금은 1년간 6개월마다 1년 미만 단기 근로계약을 제외하고 신규근로자 1인당 월30~60만원을 지원하는데 비해서, 특별 고용촉진장려금은 신규근로자 1인당 월최대 중소기업 100만원, 중견기업 80만 지원

-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 정책홍보를 치중한 것도 특별장려금의 신청을 높인 요인으로 평가됨
- 코로나 고용위기에 대응하여 특별 고용촉진장려금 예산을 증액했으나, 사업 수행기간이 약 4개월에 불과해 예산집행률이 29.1%에 불과
 - * 예산 증액이 7월에 결정되어 사업이 8월부터 본격 시행

□ 제도개선 노력

- 코로나 상황에서 일반 실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별 고용촉진 장려금의 선지급 및 지원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과 예산증액이 있었음
- 다만 취약계층 고용촉진이라는 일반 고용촉진 장려금과 한시적 특별 장려금의 형평성 및 경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음
- 그 외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에 따른 지원 대상자 반영, 40대 일자리 맞춤 대책 관련하여 40대 대상 직업 훈련프로그램을 취업지원대상 프로그램에 추가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이 양호

4 개선권고

□ 평가등급: 개선필요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에 따라 특별 고용촉진장려금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제도 간의 연계 필요
- 일반 고용촉진장려금의 낮은 고용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
 - 지원기간 연장, 고용유지기간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
-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외에도 취업 취약계층에게 내일채움공제와 같이 금융자산 형성 기회를 부여하여 자립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장기근속 유도의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검토 필요
- 2020년 고용촉진지원금의 위기대응 과정 및 제도개선사항 등을 재정리하여 미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 필요